옹기종기 설 모락모락 情

마침내 우리들의 설이 다가왔다. 상실과 허탈 속에서도 의로운 분노는 하늘에 닿아 추악한 비밀을 풀어내기에 이르렀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듯 어지러운 시국에도 설은 오기 마련이다. 시간의 순환은 엄정하여 만선을 한 어선이 항구로 돌아오듯,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든다.

설이 돌아오면 정치인들은 으레 시장을 찾곤 한다. 민심탐방이라는 허울 좋은 수사를 내걸고 연기를 펼친다. 어묵을 먹거나 사진을 찍고, 더러는 장을 보며 표를 계수한다. 그들에게 '헬조선'의 현실은 입신양명을 위한 절호의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 없이 건네는 악수에는 막막한 현실에 대한 일말의 고심이나 진정도 담겨 있지 않다.

그 사이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저마다 거덜난 생의 터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가혹하면서도 허허로운 시절을 견뎌야 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설은 '더러운 폐족(廢族)'들의 명절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난하나 마음만은 풍족하며, 소박하되 비루하지 않은 추억의 여정이다. 더러는 아픔과 상처가 있고 부표처럼 흔들릴지라도 정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인 것이다.

저기 저 둥그런 초가와 항아리를 보아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항아리 같은 자식들과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어머니 같은 초가를 말이다. 한폭의 풍경화를 떠올리게 하는 더없이 따스하고 소담한 풍경이다. 생명을 품고 기르는, 지치고 힘겨운 이들에게 희망의 숨을 불어넣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고향의 모습이다. 맑은 햇볕은 언 마음을 녹이고 부드러운 바람은 한 줌의 근심마저 날려버린다. 당신의 설 또한 그렇게 평안하고 넉넉하기를 기원한다.

/글=박성천기자 skypark@
/사진=최현배기자 choi@

비록 안팎으로 어수선하지만 설은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하는 명절이다. 한복을 차려입고 장독대를 둘러보는 이들의 모습이 더없이 행복해 보인다. 순천 낙안읍성에서 송광섭 씨 가족과 친지가 설을 앞두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